



여수세계박람회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11일 해상 공연장인 '빅오(Big-O)'의 화려한 모습이 공개됐다. 지름 43m 규모의 O형 구조물인 '빅오'에서는 개·폐막식과 수상공연 등이 펼쳐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광주 서을 등 16곳 무공천

아권연대 극적 타결...76곳은 단일화 경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진풍 끝에 지난 10일 극적으로 아권연대에 합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등에서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만들어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될 전략 지역은 광주 서을을 포함해 16곳이며 지역별 후보단일화와 민주당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민주당 후보가 옹호하기로 한 지역은 9곳이다. <관련기사 3면>

관심지역이었던 순천·곡성을 포함한 나머지 호남의 경우 통합진보당 후보가 정당대표표를 높이기 위해 총선까지 완주해도 좋다는 민주당의 제의에 따라 아권연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대표회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에서는 통합진보당 단일후보가 나서는 지역이 없다. 반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성남 중원, 의정부, 과주, 인천 남구갑 등 4곳이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됐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서을에서 통합진보당

오병은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홍성·예산, 충북 충주, 대전 대덕이 전략지역으로 결정됐으며, 영남권의 부산 영도, 해운대 기장갑, 울산 동구, 울산 남구, 경북 경주, 경산·청도, 대구 달서를 예외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4·11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공동정책 합의문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체결, 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을 전면 반대한다'는 선에서 절충했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의 중단 및 재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자치단체장 보선 후보 확정

순천 허정민, 무안 김철주, 강진 강진원

민주통합당은 오는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순천시, 무안군, 강진군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후보를 10일 최종 확정했다. <관련기사 5면>

순천시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투표 결과 허정민(55) 전 전남도 정무특별보좌관이 총 5128표(모바일 4164·현장투표 964)를 획득해, 3413표(모바일 2965·현장 448)를 얻은 허 석 후보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윤병철(50) 후보는 2222표(모바일 1802·현장 420)를 얻는데 그쳤다.

무안군수 경선에서는 김철주(56) 전 전남도의원이 3521표(모바일 1588·현장 1933)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나상우 후보와 박만호

후보는 각각 2698표(모바일 1584·현장 1114)와 2386표(모바일 1257·현장 1129)를 얻었다.

강진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강진원(52) 전 전남도 기업도시기획단장이 현장투표에서 1570표, 모바일 투표에서 1778표 등 총 3348표를 획득, 후보로 선출됐다. 서재원 후보는 2533표, 박원철 후보는 292표를 기록했다.

이들 3명은 오는 4월 11일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선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광주 4곳 총선 후보 오늘 선출

민주통합당의 광주 북갑, 북을, 남구, 광산 갑의 후보가 12일 최종 선출된다. <관련기사 3-4면>

민주통합당은 10~11일 모바일 투표를 마감하고 12일 현장 투표를 거쳐 이날 밤 10시께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관세는 네 곳 모두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2일 이뤄지는 현장 투표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에서는 현장 투표 선거인단에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광산 을은 단독 후보인 이용섭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고, 동구는 무공천, 서을은 아권연대, 서갑은 경선 후보 확정지 미뤄진 상태다.

안 지역구의 경우, 섬이 많은 신안군의 현장 투표소를 1곳에서 4곳으로 늘리기로 선관위와 합의, 모바일 투표는 14~15일, 현장투표는 16일에 실시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을 끝으로 23여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새출발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학력 및 경력 •
- 광주일고(21회), 전남대 법대(76학번)
- 미국버클리대 로스쿨 국비연수
- 서울대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 제23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18기)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순천지법 판사,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소년부 지원장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장
-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장

변호사 이재강 올림

■ 업무개시: 2012년 2월 29일 ■ 개업장소: 광주 동구 지산동 715-2법조타운 2층 201호
■ 개업소년: 2012년 3월 23일(금) 16시~ ■ 대표전화: 062)236-1200 팩스 062)236-1210

치솟는 숙박료... 여수박람회 망칠라

두달 앞두고 2~3배 폭등 '당일치기 관람' 양산 우려

무료운행 시내·셔틀버스 이용...시민들 동참도 절실

여수세계박람회(5월12일~8월12일) 개막을 두 달 앞두고 여수지역 숙박료가 서울 강남 호텔급으로 치솟는 등 모처럼 찾아온 특수로 물가가 들쭉이 있다.

대규모 행사에는 특수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눈 앞의 이익 보다는 남도의 푸근한 인심을 선사해 '전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성공적 대회를 치르자는 목소리가 높다. 또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승용차보다는 행사 기간 동안 무료로 운행하는 시내·셔틀버스를 타는 등 시민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관련기사 2면>

◇ 숙박비 두 배는 기본=여수지역 일부 숙박업소는 최근 박람회 기간 숙박요금을 2~3배가량 올려, 속소를 예약하려는 관광객과 여행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엑스포 홈페이지에 하루 숙박료가 9만원으로 소개돼 있는 여수 A호텔의 경우 박람회 기간 2명이 잘 수 있는 침대 방 하나에 26만8000원(부가세 별도)를 받고 있다. 이는 1년 3개월 전에 비해 3배가량 올랐고, 강남의 호텔 (28만~32만원)에 육박한 가격이다.

또 모텔·여관 등지도 지난해에 비해 많게는 2배가량 숙박비가 올랐고, 원통도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30%, 20% 상승했다. 특히 특수를 노린 무허가 펜션의 경우 가격 동향을 전혀 파악할 수 없고 단속도 되지 않아 숙박비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광주지역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들의 문의가 많은데도 호텔 가격이 오르고 예약도 힘들어 제때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숙박비가 오르는 것은 여수지역에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람회 기간 하루 숙박 수요는 3만5738실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여수시의 숙박시설은 7470실뿐이며, 개막 때까지 추가되는 시설을 포함해도 9898실에 불과하다. 관광객들이 비싼 요금과 열악한 시설 등을 고려해 '당일치기 관람'으로 변경하

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숙박업계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 '자가용 안 타기' 등 시민 동참 절실=박람회 기간 여수로 유입되는 차량은 승용차 179만1000대, 버스 8만9000대 등 188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이 몰리는 5월 주말의 경우 하루 최대 6만1000여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도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수로 진입하는 차량을 여수시 외곽 6곳(179만 5000㎡)의 환승주차장(승용차 3만9087대·버스 936대)으로 유도하면서 관광객들을 환승주차장~박람회장간 셔틀버스로 실어나르는 게 조직위 대책. 결과적으로 5월 주말에는 도로가 주차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수시 등록 차량까지 포함하면 시내 55곳의 임시주차장(2만1313면)으로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여수시가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한 차례 시범 운행한 결과, 통행량은 고작 16% 감소했을 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홍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5 Point Whitening

피부 속 빛의 길을 열어 5Point를 밝히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피부 속 빛의 길이 막히면 얼굴빛이 칙칙해지죠. 속부터 맑고 환한 피부를 원한다면 더욱 진화된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을 만나세요. 헤라의 바이오 기술이 빛의 길을 열어 5Point를 생생하게 밝혀줍니다. 마치 피부 속에 5개의 조명을 탁 کن 것처럼.

5 Point Whitening이란?
제대로 된 화이트닝의 증거로서 이마, 양볼, 콧등, 턱 5군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염광입니다.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NEW
미백기능성
주름개선기능성
식용색소안정성

지금 헤라 페이스북에서 당신의 빛을 찾아보세요
www.facebook.com/hera.kr

HERA

• 유통백화점이나 이모레 캐슬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